

#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 기초연설문

## 한중일, 운명공동체의 현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각국 대표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제21대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  
2011년부터 한중일 협력을 위해 이어져 온,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에서 기초연설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함께해주신 한중일 3국 협력 사무총장님께 감사합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우리는 단순한 이웃이 아닙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 문화, 경제, 종교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형성해 온, 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로 2시간이면 베이징도, 도쿄도 도착합니다.  
이 짧은 거리 안에 수천 년의 교류와 갈등, 그리고 공존의 흔적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거대한 격변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은 단순한 무역 전쟁을 넘어 글로벌 질서 전반의 균형을 뒤흔들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전 이후 가장 깊은 지정학적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작년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통해 북한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 문제는 동북아 평화 발전의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의 이면에는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질서 재편 속에서, 한중일 3국은 세계 인구의 약 20%, 세계 GDP의 약 20%, 세계 무역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세계 경제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혁신과 반도체 산업 및 K-culture 등 Soft ware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일본은 고급 제조업과 첨단기술 부문에서 여전히 독보적 위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한중일 3국 간의 무역과 투자, 인적 교류는 지난 30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상호 의존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정치적 신뢰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토 분쟁을 이유로 대화를 꺼리고, 과거사를 둘러싸고 국민 정서가 요동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 방향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손을 놓고 있으면, 우리가 잃는 것은 단지 무역 수치나 관광 수입이나 국내 정치 지지율 하락뿐만이 아닙니다.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공동 번영을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갈 기회의 토대가 뿌리부터 위협 받는다는 것입니다.

## 아시아 패러독스의 극복

전통적 국제정치 이론은, 국가 간 경제적 상호 의존이 높아질수록 갈등은 줄어들었다고 가르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 이론의 성공 사례입니다.

두 나라는 수백 년 동안 전쟁을 반복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시작으로 경제적 통합을 추진했고, 결국 유럽연합(EU)이라는 거대한 평화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특히 한중일 에서는 이러한 통설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깊이 얽혀 있지만, 역사적 기억과 민족 정체성은 서로를 가르는 벽으로 작용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 지배의 아픔, 전쟁과 분단의 상처, 과거사에 대한 해석 차이와 국내 정치의 이용 등 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경제적 상호 이익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신뢰는 깊어지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미·중 경쟁 심화,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공급망 재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블록화 가속은 한중일 3국 에게 새로운 시험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 상호 이익만으로는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 협력과 신뢰 회복을 위한 5대 과제

지금의 한중일 상황을 보면 EU와 같은 공동체는 꿈조차 꿀 수 없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EU도 그 시작은 우리와 마찬가지로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의 사자성어로 '구동존이(求同存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 같은 것을 찾아 협력하고 서로 다른 것은 미뤄두라는 의미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합니다.

3국의 정치지도자들이 눈앞의 단기적인 국내 정치 이해관계에만 매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문제라도 진정성을 갖고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반드시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결의를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와 같이 3국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논의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 **첫째, 대화의 끈을 놓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듭시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1999년 처음 시작된 이래, 동북아 협력의 상징이자 출발점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정상회담은 중단되거나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그 공백은 단지 회담의 중단이 아니라, 한중일 협력의 동력이 꺼진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상회담을 국가 지도자의 개인적 성향, 정치적 입장, 혹은 시기의 민감성에 맡겨두었습니다.

“앞으로 3국 정상회담은 언제나, 어떤 정세 속에서도 열린다.” 이 원칙을 한중일이 함께 천명하고, 사무국 차원에서 연례 개최가 자동 작동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정상 간 대화는 단지 의전적 이벤트가 아니라, 갈등의 악화를 방지하는 유일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회담을 늦추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큰 손실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 번 경험해 왔습니다.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회의'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평화의 관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한중일 3국 국회의장 회의도 새롭게 제도화 해야합니다. 국회의장 간의 대화와 교류는 정상 외교가 정체될 때에도 **관계를 유지하고 분위기를 복원할 수 있는 유연한 채널**로서 역할을 해야합니다. 이미 한중일 3국 의회는 다양한 레벨에서 교류를 시도해 왔고, "한중일 국회의장 회의의 정례화"를 통해 정치 간극을 메우는 **의회 외교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만나야 바뀝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밤을 새워 논의한 기억은 세 나라 사이의 이견을 좁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 3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세대 간 교류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캠퍼스 아시아'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못합니다. 청년 교류는 단순히 학생을 몇 명 보내고 받는 차원이 되어선 안 됩니다. 제도적 지원, 실질적 참여, 그리고 미래 리더십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합니다.

'유럽이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으로 수백만 청년을 교류시켰고, 싱가포르를 지난 30년간 동남아시아 공무원 13만 명을 싱가포르 국립대에 초청해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아세안 전체의 신뢰 인프라를 구축해왔습니다.

'캠퍼스 아시아'를 넘어, 한중일 공동 청년 리더십 스쿨 설립, 지방 정부와 연계한 한중일 청년 공무원 아카데미 운영, 스타트업 교류 허브 구축과

공동 창업 지원, 실무형 청년 외교관 교류 프로그램 신설 등의 청년 세대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청년은 단지 미래의 주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동북아 협력의 진짜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셋째,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일본이나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지 않은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실질적인 교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몇 년에 한 번씩 시장단이 가서 식사하고 사진을 찍는 '방문형 행사'에 머물고 있고, 시의원이나 공무원의 외유성 출장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는 관계 위에, 실질적 내용을 채우는 것'입니다. 함께 만들고, 경쟁하고, 지속하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한중일 지방정부 시민엑스포'**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상회담 개최국이 엑스포도 함께 주최하며, 각국 지방정부의 교류 지역의 특화산업, 문화 콘텐츠, 청년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참여하고, 청년·시민·문화인·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합니다.

한중일 자매도시 간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청년 스타트업 비즈니스 콘테스트, 도자기·다도·바둑 같은 전통문화 공동 체험 세션, 소상공인의 로컬 브랜드 공동 부스 운영 등이 하나의 엑스포 안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더 이상 '초청'만 하지 않고, '공동 기획'의 주체로 나섭니다. 청년과 시민사회는 단순 참가자가 아닌 행사 운영과 콘텐츠 설계의 핵심 당사자가 됩니다.

정상회담이 외교를 말한다면, 이 엑스포는 '사람 간 외교', '일상 속 신뢰', '함께 사는 법'을 실천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정치는 때로 멈출 수도 있지만 교류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방정부가 움직이면, 외교는 뿌리부터 살아날 수 있습니다.

### **넷째, 한중일 3국 간 스포츠 교류와 크루즈관광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세나라 국민들 간에 공통적으로 인기가 있는 스포츠인 축구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 나라 지방리그를 한중일 3국간 리그로 확대시키는 의제를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국간 축구리그 확대가 성공하면 탁구, 야구, 핸드볼 등의 종목으로 체육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3국내 일부 지역간에만 운행되는 크루즈 관광항로를 한중일 3국은 물론 북한과 블라디보스톡, 사할린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3국간은 물론 러시아와도 관광교류 범위확대를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섯째, 가짜뉴스가 3국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검증하고 해명하는 시스템을 만듭시다.**

각국 정부는 정치권이 한중일 문제를 국내 정치와 결부시키지 않고 보다 긴 안목을 갖고 냉철하게 다루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3국이 안고 있는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는 사소한 자극에도 민족주의를 촉발하는 폭발성이 매우 강한 속성이 있습니다. 각국 정치권이 이런 갈등에 편승하려는 유혹에 빠질 우려가 큼니다.

특히 최근 전통 언론보다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신속하고 손쉽게 정보를 얻고 있는 언론 환경의 급변 과정에서, 인터넷 상에서 극히 일부의 사실을 왜곡한 악의적인 댓글이 알고리즘의 작용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확증편향을 만들고, 세 나라 국민들간에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드는 사례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이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실을 검증하고 해명하는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동아시아의 새로운 희망을 향하여

오늘 제가 제안한 다섯 가지 과제

정상회담의 제도화, 청년 교류의 구조화, 그리고 지방정부 협력의 실질화, 축구·야구 등 인기 스포츠의 3국간 리그확대 및 크루즈 관광범위 확대,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의 가짜뉴스 규명 시스템 확립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한중일 협력의 '사람 중심, 미래 중심, 실천 중심' 전환입니다.

한중일 협력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함께 걷는 경험, 함께 배우는 시간, 함께 만들어내는 성과에서 시작됩니다. 정상회담은 정례화되고, 청년들은 서로의 언어로 꿈을 말하고, 도시는 서로를 환대하며 성장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지 과거를 되돌아보는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신뢰를 다시 짓고, 미래의 평화를 설계하는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입니다. 우리는 지리로 얽혀 있을 뿐 아니라, 경제, 문화, 그리고 사람의 감정으로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너무 자주 침묵했고, 너무 자주 멈췄고, 너무 자주 회피했습니다. 이제는 말뿐인 협력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구조, 멈추지 않는 대화, 그리고 실제로 손잡는 경험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상 간 회담이 정례화되고, 청년들은 매년 얼굴을 맞대고, 지방정부는 함께 행사를 기획하며, 시민사회는 교류의 실천자가 되는, 진짜 '함께하는 동북아'를 시작해야 합니다.

“천리를 보기 위해선, 누각을 한 층 더 올라야 한다”는 중국 당나라 시인 왕지환의 시귀처럼, 우리는 지금 더 높이 올라야 할 때입니다.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품으며 한중일 공동체의 다음 세대를 위해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더 멀리 보고, 더 크게 품고, 더 깊게 믿으며, 함께 손을 잡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시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중심에는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간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이 묵묵히 헌신하며 각종 협력사업과 교류의 실무를 이끌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제안하는 '사람 중심, 미래 중심, 실천 중심'의 협력 전환을 실현하려면,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 역시 그에 걸맞게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사무국은 단지 행정적 지원 기관을 넘어, 3국이 합의한 사업들을 총괄하고 조율하며,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도 협력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제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은 보다 확충되고, 정책 기획과 실행, 평가 기능이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나아가 ASEAN 사무국 수준에 준하는 독립성과 집행력을 갖춘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 강화는 사무국 스스로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3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와 실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청년세대 모두가 사무국의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국이 진정한 동북아 협력의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Keynote Speech

KIM Jinpyo, former Speaker of the ROK National Assembly

Ladies and gentlemen and distinguished guests, welcome, and I'm very happy to see you all. I am Kim Jin-pyo, former speaker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of Korea. I am deeply honored to deliver the keynote speech at IFTC.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TCS. Korea, China, and Japan are not merely neighbors. From ancient times to present, we have shaped one another through the exchange of history, culture, economy, and relations, and we formed each other. Our relationship cannot be explained in isolation. It takes only two hours to fly from Seoul to Beijing to Tokyo. Within this short distance lies the years of history spanning thousands of years marked by exchange conflict and coexistence. The world is currently undergoing a period of tremendous upheaval.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gone beyond a simple trade war, and the war in Ukraine has created a deepest geopolitical rift. Last year, North Korea and Russia signed a treaty o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leading to the deployment of North Korean troops to Ukraine. North Korea's nuclear weapon program cannot be anything but a major threat to peace and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Underlying this issue is a matter of trust from the perspective of South Korea and Japan, which are hoping that North Korea will abandon its nuclear weapon to re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 think China can play even a bigger role. Amid this restructuring of international order, the three countries account for 20% each of the global population, global GDP and global trade volume playing a central role in the global economy.

South Korea has grown into software powerhouse with digital innovation, semiconductor industry and K-culture. While Japan continues to maintain its unique position in advanced manufacturing and cutting-edge technology sectors, China has established itself as a hub in the global supply chain with its massive domestic market. In particular, trade investment in people to people exchange among the three countries has exported over the past three decades. However, despite deepening economic interdependence, political trust has been eroding. We still avoid dialogue over territorial disputes, national sentiment swings over historical issues, and diplomatic directions fluctuate with each change of government. As a result, negative perceptions among young generation are growing, which is particularly concerning. If we continue to stand idle, we will

stand to lose this not merely trade tourism, but domestic political support. The very foundation of opportunities for the next generation to thrive through stability, peace, and share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will be lost. Traditional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teaches that as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countries increase, conflicts decrease. Germany and France are successful, for example, they fought wars repeatedly for hundreds of years. But after the World War II, they promoted economic integration starting with ECSC and eventually EU, a huge community of peace. However, this conventional wisdom did not work in Asia, especially Korea, China, and Japan. While their economies are deeply intertwined, historic memories and national identity have acted as barriers between us. The pain of imperial invasion and colonial rule and the wounds of war and division,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of history and exploitation of domestic politics have all intertwined complexity, preventing political trust from deepening.

Moreover, the intensifying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US, restructuring of supply chains after COVID 19 pandemic and acceleration of block formation since the war in Ukraine are presenting new challenges. We are now faced with harsh reality. Given the current situation, it may seem impossible even to dream of community like EU. However, they were like what we are today. There is a Chinese proverb that says seek common grounds while preserving differences. This means we should first find common ground to cooperate on and set aside differences. We can't achieve everything we desire overnight. We must not give up but tackle this issue step by step. The political leaders must not be consumed by short term domestic political interest. No matter how long and complex the issue may be, if we approach them with sincerity and exercise new political imagination, we can certainly improve the situation. However, rather than merely discussing and talking about restoring trust, as we have done so far, we must take concrete actions no matter how small. First, let's create a system that keeps the lines of communication open. Since its inception in 1999, trilateral summit has served as a symbol and starting point for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However, over the past eight years, the summit has been suspended or remained difficult to hold.

That was not merely the suspension of summit, but a period when the momentum for trilateral cooperation was faded. We must leave differences behind. From now on, the trilateral summit will always be held regardless of the circumstances. This principle must be jointly declared and

institutionalized to ensure automatic annual convening from the secretariat. This is because dialogue should not be considered as mere ceremonial event, but this is the only safeguard against the escalation of conflict.

We should understand not having meeting would lead to greater loss. Now trilateral summit must become a peaceful tradition that must be upheld rather than meeting that may be held. Along with this, trilateral parliament speakers meeting must also be institutionalized. Dialogue and exchange between parliamentary speakers should serve a flexible channel to maintain relationship and restore atmosphere when the when the summit diplomacy is stalled. The parliaments have already attempted exchanges at various levels. Through the regularization of the trilateral parliamentary speakers' meeting, it should be developed into parliamentary diplomacy platform because I was one of the speakers of the parliament for some time. We need to therefore make a parliamentary diplomacy platform as a bridge of political gaps. Meeting is the key to change. The memories of dining together and sailing up all night discussing issues will serve as a driving force to narrow the differences. Secondly, we must enhance youth exchange. While programs like Campus Asia exist, but that is not sufficient. Youth exchange should not be limited just sending and receiving youth students, but rather we need to institutionalize this support and substantiate participation. Europe has facilitated exchange of millions of youth people through the Erasmus program, and Singapore has invited 130,000 Southeast Asian civil servants to NUS over the past three decades to provide education and training infrastructure for ASEAN.

Beyond Campus Asia, we must actively promote exchange among youth generation through initiatives such as trilateral youth leadership program, trilateral youth public servant academy, and start up exchange and so on and so forth so that we can have a practical young diplomat exchange program. Young people are not just merely the owner of the future, but they can also be a true subject of Northeast Asian cooperation at very moment. Thirdly, we must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n practical terms. Currently, there are almost no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and that haven't formed sister city relationship with Japan or China. But we should not just make such a relationship limited to visiting events for local parliamentarians. We must build on existing relationship and fill them with substantive contents. To this end, I will propose a regular holding of the trilateral local government citizens' expo. The host country of the

summit would cohost the expo with local governments from each country participating with their specialized industries, cultural content, and youth entrepreneurship project from their exchange regions. This would create a platform for youth, citizens, cultural figures, and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to engage in substantive exchange and cooperation. Her Excellency Kawaguchi Yoriko said that tea ceremony as well as the pottery and those traditional exchanges may be one of the experiences that can be offered in this expo. In this process, local governments no longer merely invite but actively participate as key stakeholders in joint planning. Youth and civil society will become core stakeholders in the event operations and content design rather than mere participants.

While summit meetings discuss diplomacy, this expo will serve as a space to practice people to people diplomacy, trust in daily life, and living together. Politics may sometimes come to a hold but exchanges never stop. When local governments take action, diplomacy can be revitalized from its roots. Fourthly, we must expand sports exchanges and cruise tourism between the three countries. It would be good to discuss at this summit the expansion of the current local leagues in each country into three country league, starting with the soccer, a football, the sport that is popular among the people of all three countries. Maybe we can expand pundit to sports such as baseball, tennis, so table tennis, and handball and so on and so forth. Additionally, it would be desirable to gradually expand cruise tourism route currently operating between some regions within the three countries to include not only the three countries, but also North Korea, Vladivostok, and Sakhalin Islands, thereby promoting expansion of tourism exchanges not only among three countries but also with Russia. Fifthly, let us establish a system to verify and clarify fake news to prevent it from exacerbating tensions among the three countries. Each country's government should avoid linking the three country issue to domestic politics and instead approach it with long term perspective and a cool head.

We need to look to the future. Our historical and territorial issues that the three countries have faced have a highly explosive nature capable of triggering nationalism even from minor stimuli, particularly in the rapidly exchanging media environment where information is now obtained more swiftly and easily through platforms such as YouTube than traditional media, malicious comments distorting facts have spread rapidly through algorithm mechanism, reinforcing confirmation bias

and deepening emotional divides among the people of the three countries, especially among the youth. In such cases, TCS should establish a system to verify and clarify facts by forming a consultative body composed of experts from each country.

Now, five tasks as proposed toda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ummit meetings, the structuring of youth exchange, realization of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expansion of popular sports leagues such as soccer and baseball among three countries, expansion of cruise tourism and establishment of fake news verification system by TCS, all points in the same direction. Cooperation among three of us should be people-centered, future-centered and action-centered. Our activity is not achieved through declarations alone. It begins with the experience of walking together, time spent learning together and achieving, create together. Summit meetings should be regularized. Young people should share their dreams in their own languages. Today, we are not merely gathered to reflect upon the past. We are seated together to understand each other's wounds, build trust, and design that peace for the future.

We are not able to move away because we are neighbors, and we are not only geographically intertwined but also connected through emotions, culture, and human emotions. However, in the past, we have too often remained silent, too often posed, and too often avoided each other. But now we must create not just empty cooperation, but structure that moves together, unceasing dialogue and the experience of actually joining hand. We need to make people meet regularly and government meet regularly so that Northeast Asia that works together can be achieved. We need to step up everything we do. We need to aim higher. We need to look even further to give these trilateral cooperation relations for the next generation. We need to dream bigger and look for the future and to take each other's hands to open a new future for East Asia. TCS would also be the heart of our journey. We appreciate their steadfast dedication in leading various cooperation project and exchange between the three countries. Mr. Hee-sup has made a great contribution, so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gratitude. But people centered, future centered, and action centered should be the focus for us. We need to expand our cooperation even bigger, not just among governments, but carrying out activities that are agreed by the government led by TCS. TCS, therefore, should be the core of continuity, and we need to ask TCS to play such a role. Policy, planning, and evaluation, those activities, therefore, need to be more systematized like

ASEAN Secretariat is doing with its independence and executive power. Such function enhancements of TCS cannot be achieved through the secretariat's efforts alone. They require a political will and substantial and actual support of the three governments as well as cooperation, not only between governments, but also among local governments. Not just for Northeast Asian issues, but also the local governments need to be a partner for TCS as well, thereby making TCS as an engine for the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at concludes my presentation. Thank you very much.